

# 전주發 대한드론축구협 설립 가시권

### 경북·포항지부 출범... 포항 A·B팀, 포항이글, 포항월드, 포항레드데빌 5개팀 참여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를 즐기는 동호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 드론축구팀과 동호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한드론축구협회 공식 설립과 리그 출범 등을 위한 기반이 착실히 다져지고, 전주가 드론축구 중추도시로서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포항지역 5개 드론축구팀 및 동호회원 등은 최근 포항시에서 대한드론축구협회 경북·포항지부

발대식을 가졌다.

대한드론축구협회 경북·포항지부는 포항 A·B팀, 포항이글, 포항월드, 포항레드데빌의 총 5개팀을 비롯한 드론축구 동호회원들이 참여하게 되며,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부 구성과 운영방향, 향후계획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와 관련, 시는 최첨단 ICT 융복합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를 통해 드론메카도시로의 야심찬 꿈을 착실히 실현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적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조직인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지난 3월부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회 설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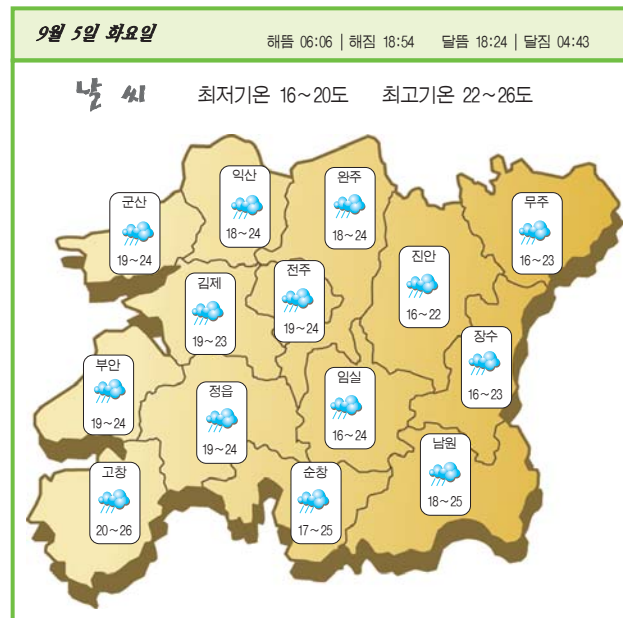
시는 또,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추진위원회 리더로서 지난 5월 전국 드론축구 선수단 출범식을 통해 서울·부산·울산·대구·강원 등 전국 12개 지역에 지부를 설립하고, 지부 내 드론축구팀 창설 및 드론축구대회 개최 등을 지원해왔다.

최임수 경북포항지부장은 이번 발대식에서 "드론축구가 경북과 포항만의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레저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한드론축구협회 지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경북포항지부가 생겨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규모 시·도 조직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향후 대한드론축구협회 등록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드론축구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한 전주시의 꿈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한국연구재단)

### 국내 최초 한중관계 전문 학술지로 인정받아... 연구자 동향·이슈 등 소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관계연구(韓中關係研究)'가 2017년 등재후보학술지 선정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 학술지는 지난 2015년 3월 창간해 올해 2월 제3권 1호(통권 5호)를 발간해 처음으로 평가 신청 자격을 갖추었으며, 신청 첫해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중 관계 연구자를 위한 소통과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한·중 관계 및 양국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창간된 '한중관계연구'는 현재 국내 최초 한중관계 전문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에 관련된 동향과 이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한·중 관계 연구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은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을 계기로 국내·외 한·중 관계 연구자의 관심과 투고를 더욱



격려하고, 학술지 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원 자체 노력을 배가해 향후 등재후보학술지 자격 유지 및 등재지 승격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학술지에 대한 정보와 게재 논문은 한중관계연구원 홈페이지(<http://kcri.wku.ac.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대, 정년퇴임 교원 4명 정부포상 전수·송공패 수여

군산대학교는 4일 군산대학교 본부 총장 접견실에서 정년퇴임 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이견형 교수 등 퇴직 교원 4명에게 정부포상 전수 및 송공패를 수여하였다.

정부포상 전수식에는 나의군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퇴직교원 등이 참석했고, 4명의 퇴직교원은 모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이날 정년퇴임한 교수는 생물학과 이견형 교수, 환경공학과 조용현 교수, IT정보계어공학부 조준익 교수,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부 이원우 교수 등이다. 이견형 교수와 이원우 교수에게는 홍조근정 훈장이 수여되었다.

이견형 교수는 마르쿠스 후즈후 사전에 등재되었다.

조용현 교수는 군산대학교 환경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조준익 교수는 38년간 군산대학교에 재직하며 후학양성 및 학생지도에 헌신했다.

이원우 교수는 군산대학교 수산과학 연구소장, 선박실습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군산=장 현 기자



## 이남호 총장 임명장 전달... 교육 질 제고 당부

전북대학교가 교육과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30명의 신입교수를 임명했다.

이 총장은 지난 1일 신입교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연구 경쟁력 향상과 강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일자로 임명된 신입교수는 다음과 같다.

박숙경(간호학과), 문재성(기계공학과), 김태영(기계시스템공학부), 김우희(신소재공학부 전기재료), 김중용(신소재공학부 정보소재), 김성륜(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오주원(자원에너지공학과), 이재석(전기공학과), 이형태(컴퓨터공학부), 최현우(동물자원학과), 신지혜(법학과), 김정인(영어교육과), 노태환(과학교육부 화학교육), 김정현(일반사회교육과), 이선우(정치외교학과), 정준호(행정학과), 김인수(경제학부), 엄재구(수의학과), 전유별(수의학과), 김진규(의학과), 박종일(의학과), 진홍용(의학과), 김지환(음악과), 김대열(수학과), 이정진(치의학과), 유인태(지미카터국제학부), 양동민(기록관리학과), 김중성(한스타일컴퓨터소스본부), 송덕호(큰사람교육개발원)

/정해은 기자

## 원광대, LINC+사업 참여 학과 교수 설명회

원광대학교가 최근 2017학년도 LINC+사업 참여학과 교수 설명회를 학생지원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송문규 LINC+사업단장을 비롯해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LINC+사업 동향 및 중점사업, 기업연계 학생대상 프로그램, 산학교육사업 주요 현황, LINC+ 사업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송문규 단장은 "지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대학과 기업,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광대는 앞으로 교유의 산학협력 메뉴판인 WINNER+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회수요 맞춤형 산학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자 안전교육

군산교육지원청은 4일 군산교육문화회관 1층 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학교, 유치원 및 학원 관계자(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산경찰서 이상철 경사를 초빙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을 살펴보고 기관 관계자들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주 교육장은 "모두의 관심과 애정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지켜진다"며 "관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차량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관문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한자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